

‘세 갈래 갈림길에서 선택하신 偉業’

-KIST에서 성기수 박사를 유치-

편집위원회

일제의 수탈과 6.25동란으로 이어지는 비극의 역사가 이땅 위에 점철되면서 우리 민족에 부과된 가난의 고통을 치유하는 최상의 처방은 경제건설을 겨냥한 과학기술의 발전밖에 없다는 대전제 아래 KIST(한국과학기술연구소)가 설립되기에 이른 것이다. KIST가 설립되면서 컴퓨터 이용기술에 대한 연구는 중요한 분야로 부각되면서 이에 대한 연구의 방향과, 이를 맡아 이끌고 갈 책임자 선정 문제는 당시 KIST 소장인 최형섭 박사에게 부담스런 사안이었다고 한다.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컴퓨터의 불모지나 다름 없었기 때문에 이를 담당할 책임자를 찾는 문제는 당연히 부담스러웠으리라는 짐작이 간다. 일단 컴퓨터 분야를 이끌고 갈 책임자는 첫째, 수학적인 두뇌가 있어야 되고, 둘째, 미국 등의 선진국에서 실질적으로 많은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조건을 내걸고 책임자를 찾는 과정에서, 초대 공군참모총장인 김정열 장군으로부터 성기수 박사(당시 공군사관학교 교관, 공군대위)가 최적 인물인 것으로 추천된 것이다.

이때 성기수 박사는, Harvard 대학에서 2년 만에 석·박사 학위를 수여받음으로써 Harvard 300년 역사의 신화를 창조한 주인공이라는 사실이 보도되어 널리 알려진 상황에서, 공군사관학교 항공공학 교관으로 근무하면서 Part Time으로 한국경제개발협회 조사역과 서울대 행정대학원 및 경영대학원의 OR 담당 시간 강사를 겸하고 있었다. 그러나 생활이 어려워 Harvard 대학의 Bryson 교수의 추천으로 캐나다의 Western Ontario 대학 수학과 교

수로 가기로 결정되어 가족들의 비행기표까지 보내져 출국 수속을 밟고 있던 중이었다. 결국 최형섭 박사와 김정열 장군 그리고 당시 한국경제개발협회 회장인 송인상(전 재무부장관), 이 세 사람 사이에 모종의 합의가 이루어져 급기야는 출국이 저지되기에 이르렀다고 한다. 3개 기관이 공히 필요로 하는 인물이 되고 보면, 당시 성 박사로서는 불가항력의 입장일 수밖에 별다른 묘수가 없었다고 한다. 이와 때를 같이 하여 한국경제개발협회에서 같이 일했던 남덕우(전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교수로부터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자리 Offer도 있었다고 하니 하마터면 로켓트의 궤도가 영영 다른 곳을 향해 그어져 버릴 뻔했다는 생각마저 든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캐나다 행 비행기를 타는 문제에 대해서 성 박사 자신도 강하게 집착한 것이 아니어서 쉽사리 포기할 수 있었다고 그때를 회상한다.

결국 1967년 초, KIST 전산실을 맡아 이땅에 정보산업의 발을 일구어야겠다는 확고한 결심과 함께 서강대학교와 캐나다의 Western Ontario 대학의 교수 자리를 포기하고, 공군사관학교 교관과 한국경제개발협회 조사역의 자리를 그만두고 대망의 전산실의 역사적인 항해의 배고동을 울리게 된 것이다. 곧 이어서 전산실의 진로를 정하기 위해 미국의 바텔연구소에서 파견된 Mike Tilson과 당시 육군사관학교 교관인 김덕현 박사와 함께 한국의 컴퓨터 관련 수요 조사와 컴퓨터 기종선정작업, 그리고 도입준비 작업에 몰두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컴퓨터의 활용 분야를 과학기술 분야로 제한하자는 바텔측의 주장과 사회 전분야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성 박사의 주장이 팽팽하게 대립되었으나 종래에는 바텔측을 설득하는데 성공한 것이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보건데 이 단계에서 이미 성 박사의 머리 속엔 향후 우리나라의 정보산업의 방향이 복잡한 변수들로 구성된 수학적 모델로 자리 잡히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마저 들게 된다.

세 갈래 갈림길에서 선택하셨던 그 길이 27여년의 기나긴 세월과 함께 오늘에 이름에, 한편으로는 이슬이슬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그때 그 순간의 결심이 얼마나 냉철하고 훌륭하신 것이었는지 삼가 역설의 여지를 불허할 정도라 할 것이다.